


환경부 공식사이트, 물사랑 홈페이지입니다!

Back Forward Stop Refresh Home AutoFill Print Mail

Address:

함께
토록
해요



물 절약
칼럼

물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_ 예효정 (중학생)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세계평균보다 1.3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물의 활용 제한은 세계 평균의 10% 밖에 못 미친다고 하네요. 이것은 7, 8월에 쏟아지는 폭우 때문인데요. 이 강수량도 우리에게 좋은 물 자원이 된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수량은 단지, 한여름에 내리는 폭우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인 셈이죠.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소중한 물 자원이 전부가 바다로 빠져나가 사용할 수가 없게 된거죠.

한여름에 내리는 강수량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 많은 댐을 건설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국토의 비해 국내 댐의 수는 많은 편이지만, 아직도 한꺼번에 내리는 강수량을 다 가두어 두지는 못하죠. 그래서 장마철에도 댐에서 물을 내보내야하구요. 정작 필요한 가뭄 한때에는 댐에서 물을 못 보낸다는 거죠. 자기 마을에 댐이 건설되어, 고향을 잃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댐으로 홍수와 가뭄도 막고, 우리에게 '물부족 국가'란 소리는 더 이상 나오질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

[Re]

- *이석호 : 우리나라는 1인당 사용가능한 물량이 기준치에 비해 적어서 물부족 국가입니다. 즉 인구가 많아 서 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1인당 물사용량은 395ℓ로 서구 선진국보다 한참 높 습니다. 물 아까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죠, 댐을 만들어 물이용기능률을 높이는 것은 제일 마지막 에 해야 할 일이죠. 필요한 만큼만 쓰고, 다시 쓰고 해서 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 *미소년재패 : 지금 커다란 실천보다는, 조그만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5위안 의 물 많이 쓰는 국가라는 오명과 물부족 국가라는 꼬리표를 달다니... 1인당 물 사용량부터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석호님 말씀처럼 물 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김영배 : 우리나라는 매년 몇 차례씩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각 하천에 는 벌건 흙탕물이 흐르고 하류지역은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곤 하구요. 해 서 하는 말인데요. 이런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또 나아가 물 절약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을 찾아 우리 국민 각 가정에서 실천한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마라도에서는 이런 빗 물을 받아 식수 및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물

글_ 권덕희 (공무원)

우리는 평소 가장 귀한 것을 진정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곁에 없을 때 비로소 그 물건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가장 소중한 물과 공기입니다. 물은 풍부할 때에는 소중함을 모르고 살지만 극심한 가뭄이 닥치면 한 모금의 물로 귀한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가꾸어 주는 매체로서 중요합니다.

자연을 건강하게 숨쉬게 하는 것은 맑은 공기이지만,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은 깨끗한 물이지요. 초 여름 아침 강변 안개 속에서도 생명체가 자라고 있음은 귀하고 소중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물을 아끼고 사랑하면 물도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강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물은 소중한 생명체를 탄생시 키는 영양분입니다.



Address: http://www.ilovewater.or.kr

세탁기 헹굼 물 아껴 쓰기!

글 _ 성현석

세탁기에 빨래를 하고나면 헹굼 때가 있죠.

첫 번째 물은 좀 더럽고 해서 버리거든요. 두 번째 헹굼 물은 큰 물통에 그대로 담아두고 걸레를 빨 때나 양말 빨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 욕조에 담아주지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물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죠. 우리 모두 물을 아껴 쓰시다!! ^^



물 절약, 딱! 좋은 아이디어 7가지

글 _ 안상민

1. 세탁기를 돌리려면 빨래를 모아서 돌린다.
2. 머리를 감으려면 비누로 감는다.
3. 폐식용유는 빈 통에 모아 수산화나트륨과 섞어 비누로 만든다.
4. 세수를 할 때는 물을 세숫대야에 받아서 한다.
5. 물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신문지에 싸서 버린다!
6. 오염물질을 없애는 미나리, 창포 등은 뽑지 말고 반대로 많이 심는다.
7. 외출할 땐 세숫대야, 욕실, 주방 등 물이 나오는 곳을 모두 꼼꼼히 살펴보고 간다.



국수 삶고 남은 물 재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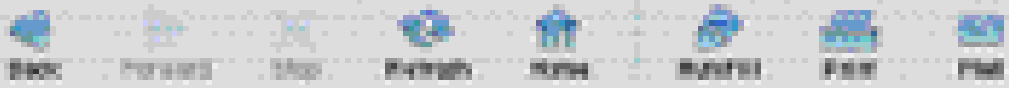
글 _ 엄윤정

날씨가 더워지면서 비빔국수나 국수장국 내어서 말아먹는 집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국수 삶고 남은 물을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수를 삶으면 찬물에 헹구기 마련인데 그 물을 받아 놓으면 꽤 많은 양이 되거든요. 우선 국수 삶은 물과 헹군 물을 같이 받아서 큰 통에 받아 놓으세요. 그런 다음 설거지 할 때 기름기 묻은 그릇을 세제 묻히지 말고 그냥 국수 삶은 물에 설거지를 해 보세요. 기름때가 깨끗이 제거 된답니다. 물도 절약하고 세제도 절약하고 오염도 줄어들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죠. ^^



※본 글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원문 그대로 발췌하였습니다.



http://www.k-water.or.kr

물사랑 일기



2004_6_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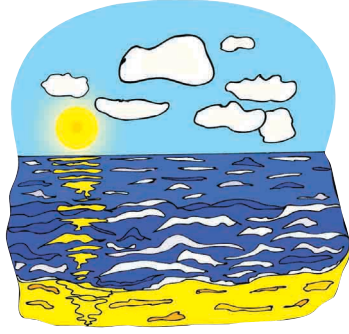
물사랑 일기

korea7024 (관리사무직) | 하루에 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지출된 금전적인 것만을 보게 된다. 자신의 몸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으로 하루를 정리하게 된다. 물사랑 일기를 쓰면서는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것이 꼭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물도 지금 사 먹는 실정이므로 아직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점점 내 자식, 보이지 않는 후손들도 생각하면 아찔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이 느끼듯 사람들도 많이 느끼고 살까? 물! 금전적 가치도 높은 물인데..

2004_6_23

'나 먼저' 실천하자!!

hanbit (초등학생) | 나는 걱정된다. 20년 후면 40억 톤의 물의 소비 된다는데 12살이 된 내가 어떻게 그 험한 세상을 헤쳐 가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 모두 노력을 하면 된다. '나 먼저' 라는 생각을 버리지! '나 먼저' 라는 생각으로 나 먼저 실천하자!!!



2004_6_22

글짓기

waterlife (중학생) | 내일까지 물사랑 글짓기를 해오라는 선생님의 방송이 들려 왔다. 나는 문예부이기 때문에 글짓기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시험기간이라 골치 아프지만 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 그리 나쁘진 않다. 얼마 전 시골 가는 길에 <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물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 인데 지금 나는 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일본에서는 빗물을 탱크에 저장해서 걸러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일본 사람들의 알뜰한 절약 정신이 있으니 본받아야겠다. 오늘 물사랑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나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글짓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ㅋㅋ ^^



2004_7_4

얼린 수돗물 녹여 마시면 좋다

hwanshik (전문직) | 어떤 물이 건강에 좋은 물일까? 간단히 말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미네랄을 충분히 함유한 물이 좋다. 과일과 야채 등 의사들이 권하는 건강식품은 물이 95%, 섬유질이 4%이며 그 나머지 1%는 미네랄이다. 따라서 섬유질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물과 미네랄을 먹는 것과 같은 말이다. 주위에서 가장 손쉽게 미네랄워터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수돗물의 소독약은 염소성분으로 휘발성이 강하므로 30분 이상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날아가므로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 또한 pH8 이상의 알칼리성인 물이 좋다. 그런데 미네랄워터, 알칼리이온수 등이 모두 6각 구조의 물인데 가정에서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우선 수돗물을 받아서 공기 중에 30분 이상 방치한 다음 냉장고에 넣어 얼린다. 그리고 그 얼음을 녹이면 구조가 치밀한 6각 구조의 물이 되는데 이렇게 만든 물은 맛도 좋다.



2004_7_12

물 사랑 = 천연비누

jung67 (교직자) | 오늘은 학교 주변의 지역주민들에게 천연비누 만들기를 강의 하는 날이다.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운동을 3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약간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다.

이 사이트의 물사랑 플래시를 이용하여 물사랑 캠페인을 하고부터는 사람들의 물사랑, 물절약의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 대니 서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의 제목에 힘을 얻어 꾸준히 '천연비누 만들기' 수업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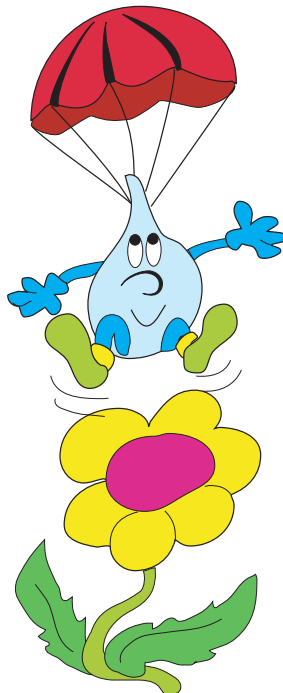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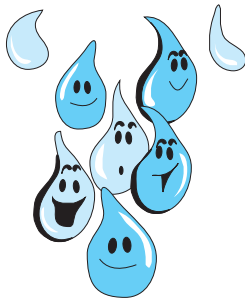
원재료비가 비싸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유통과정을 거친 천연비누의 가격을 생각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물에서 자연분해가 되고, 피부에도 '짱'인 나만의 비누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 같다.

오늘도 물사랑에 와서 이런 저런 자료를 수집하고 캠페인 일정을 잡아본다. 여름방학동안 학생들과 열심히 해야겠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는 더 용기를 내어 보련다.

2004_7_13

우리 엄마의 물 사랑!

thek2003 (초등학생) | 우리 엄마의 물사랑은 어디까지일까? 머리를 감을 때는 세탁기에다가 머리를 대고 감으시고, 설거지를 하실 때는 세수했던 물로 설거지를 하신다. 우리 가족 모두 물을 사랑하고 아낀다. 나도 언제나 물을 사랑할 것이다.



2004_7_15

나의 물사랑 실천!

thek2003 (초등학생) | 나는 5월부터 지금까지 물 절약 일기를 책으로 쓰고 있다. 그 일기를 쓰면서 나는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걸 알고 나는 가족들 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말했다. 먼저 아빠께서는 목욕하실 때 물을 너무 많이 낭비하셔서 몸에 거품을 문하실 때는 물을 잠그고 하시라고 말씀드렸다. 또 엄마께서는 설거지를 하실 때 물을 틀어 놓고 하시지 말고 아빠처럼 물을 잠그고 하시라고 말씀드렸다. 마지막으로 동생에게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많이 틀어 놓지 말라고 말했다. 우리가족이 앞으로 물을 많이 절약했으면 좋겠다. ^^

2004_7_20

학교에서의 물 사랑

neeipclover (중학생) |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할 쯤의 일이다. 청소 시간에 수돗가를 가게 되었는데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팔팔 나오고 있었다. 나는 수도꼭지를 있는 힘을 다해 눌러 잠그려고 노력했지만 물은 계속 새고 있었다. 그렇게 십 여분 쯤 지나서 겨우 수도꼭지에 물방울이 조금 맺히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교실로 곧장 달려와 연습장을 뜯었다. 그리고 낡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이 수도꼭지는 고장이니 건들이지 마세요' 라고 썼다. 학교시간에 나는 수돗가를 고치고 계신 아저씨를 보았다.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았다. ☺